

신세계스퀘어 미디어아트 어워즈
Original / Template Creation 제작용 문안

세종 태지석과 태항아리	세종의 태를 봉안했던 항아리와 기록석.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한 유물.
세종 상시호 금보	세종의 시호가 새겨진 금보. 조선왕실의 위상과 의례를 보여주는 유물.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 세종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기록한 유물.
양부일구	조선시대 해시계. 태양에 비친 그림자로 시간과 절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과학 유물.
창경궁 자격루 누기	조선시대 물시계. 물의 흐름에 의해 종과 징·북 등을 울리게 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과학 유물.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세종 때 발명된 강우량 측정기의 받침대 조선시대 과학적 강우량 측정을 실증하는 유물.
서울 관상감 관천대	세종 때 설치된 서운관의 관측대. 우리나라 천문 관측 역사의 발전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과학 유물.
서울 청계천 수표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수위계. 세종 때 발명된 하천수위계의 전통을 이은 과학 유물.
경복궁 풍기대	경복궁에 설치된 풍향·풍속 측정용 깃발을 세우는 받침대. 조선시대 바람을 측정했다는 실증적 과학 유물.
창경궁 풍기대	창경궁에 설치된 풍향·풍속 측정용 깃발을 세우는 받침대. 조선시대 바람을 측정했다는 실증적 과학 유물.
천자총통	세종 연간에 개발된 대형 화포로 크기에 따라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 구분하여 명명함.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물.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종묘 영녕전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종묘의 별묘. 세종 연간에 지어진 왕실 제례 공간.
종묘제례악 악기- 훈(塤, 塤)	흙으로 만든 관악기. 빈 병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 같은 소리는 연주의 신비감을 높여줌.
종묘제례악 악기-특종(特鐘)	금속 재료로 만든 타악기. 편종의 종보다 두 배 크며 장중한 소리를 냄.
종묘제례악 악기-진고(晉鼓)	현재 사용되는 북 중 가장 큼. 형겅으로 말아서 만든 북채를 양손에 들고 서서 연주.
종묘제례악 악기- 지(箎)	가로로 부는 대나무 관악기. 소금보다 높고 맑은 음색을 냄
종묘제례악 악기-좌고(座鼓)	통일신라시대의 대고와 교방고라는 북의 전통을 이은 타악기.
종묘제례악 악기-대금(大琴)	옆으로 부는 대나무 관악기. 피리와 단소 등에 비해 음역이 넓음.
종묘제례악 악기-적(箏)	세로로 부는 대나무 관악기. 지공 여섯 개로 음을 냄.
종묘제례악 악기-어(敔)	호랑이 형상을 본뜬 타악기. '탁탁', '드르륵' 두 소리로 음악의 마침을 알림.
종묘제례악 악기-소금(小琴)	가로로 부는 관악기. 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가지며, 대금보다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냄.
종묘제례악 악기-당피리(唐 鶯 箏)	대나무 관대에 겹서를 끼워 입에 물고 부는 관악기.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중 소리가 가장 큼.
종묘제례악 악기-나발(喇叭)	긴 관을 불어 소리 내는 관악기. 위엄 있는 큰 소리로 신호와 의례에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통소(洞簫)	세로로 부는 관악기. 조선시대 궁중과 민간 음악에서 두루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 축(祝)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 타악기. 몸통은 사각형 나무 상자이고, 연주채는 나무 몽둥이 형상.
종묘제례악 악기-장구(杖鼓)	한국 전통 음악을 대표하는 타악기. 궁중음악부터 민간 음악까지 폭넓게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절고(節鼓)	받침대 위에 올려 연주하는 큰 북. 궁중음악의 시작과 끝,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영고(靈鼓)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한 북. 땅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칠한 것이 특징.
종묘제례악 악기-노도(路鼗)	긴 장대에 북통 2개를 매단 북.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세 번 흔들어서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나각(螺角)	소라 껍질로 만든 관악기. 한 가지 음만 내지만 힘 있는 소리로 의례와 행렬에 사용.
종묘제례악 악기- 금(琴)	일곱 줄로 된 현악기. 왼손으로 줄을 짚고 오른손으로 줄을 튕겨서 연주.
종묘제례악 악기-아쟁(牙箏)	눅혀서 활로 켜는 현악기. 낮고 묵직한 소리를 냄.